Wyvern Weekly



2025년 09월 24일

- 9월의 저주 이겨낸 코스피와 미국 증시
- 3500선 눈 앞에 둔 코스피, 상대적으로 부진한 코스닥
- 미국 금리 인하에도 원·달러 환율 1400원 근접, 환율 불안 지속
- FOMC, 옵션 만기일 등 이벤트 소화하며 양호한 흐름 이어지는 미국 증시, S&P 500 6700선 코앞
- 엔비디아 오픈AI, 인텔 투자 이어지며 AI 성장 모멘텀 지속



[산업 지수]



[와이번 위클리팀]

팀장: 이강산 팀원: 김재겸 유제우 박재영 황서연 이예진

Ι	- 롯데	7	는	해킹	【】	-EH

• • • 3p

• • • 5p

• • • 6p

• • • 9p

• • • 10p



롯데카드 해킹 사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금융 피해 우려

- 회원 960만 명 중 약 297만 명의 주요 개인정보 유출, 28만 명은 카드번호·cvc 등만으로 즉시 결제가 가능한 '즉시 위험군'으로 분류
- 뒤늦은 사건 보고와 신고 지연, 미흡한 보상안으로 대규모 해지·탈퇴 발생
- 정부 차원에서 징벌적 과징금, 강력한 제재 나설 것으로 예상 → 최대 매출액 대비 3% 부과 가능
- 계속되는 기업들의 보안 사고로 인한 평판 리스크 인식과 ESG 제고 필요성



출처 - 한국경제

과징금 비율	추정 과징금 (억원)	설명
1%	약 220억 원	최소 수준, 단순 부주의·관리 소홀 판단 시
2%	약 440억 원	중대한 관리 부실·보고 지연 포함 시
3%	약 660억 원	고의·중과실, 재발 사고로 판단 시

출처 - wyvern



롯데카드 해킹 사태

MBK 책임에도 롯데만 뒤집어쓴 해킹 피해

- 롯데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며 롯데카드를 MBK에 매각 → 실질 경영권은 MBK, 롯데는 이름만 빌려주는 구조
- MBK는 본질적으로 투자 수익 실현이 목표 → 장기적 보안이나 안정성보다는 단기 수익성에 집중
- 타 카드사 대비 낮은 보안 감사 횟수와 정보보안 예산 축소 등 사모펀드식 경영에 대한 우려 제기
- 규제 강화로 보안 관련 섹터 수혜 기대, 전통 카드사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간편 결제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성

정보 보호 예산	증가폭
10.3%→14.9%	4.6pp
8.1%→10.2%	2.1pp
10.3%→10.7%	0.4pp
18.2%→13.8%	-4.4pp
9.2%→8.5%	-0.7pp
11.7%→10.4%	-1.3pp
11.4%→8.4%	-3.0pp
	$10.3\% \rightarrow 14.9\%$ $8.1\% \rightarrow 10.2\%$ $10.3\% \rightarrow 10.7\%$ $18.2\% \rightarrow 13.8\%$ $9.2\% \rightarrow 8.5\%$ $11.7\% \rightarrow 10.4\%$

출처 – wyvern



출처 – 조선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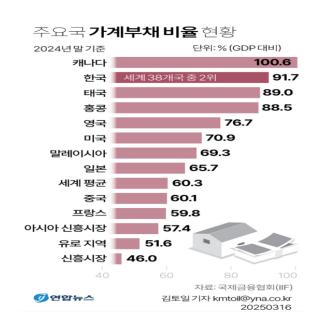
아파트 가격 상승 지속

정책 대응에도 이어지는 주간 상승 흐름

-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 지속
- 공급 물량이 서울 외곽에 집중되어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가 예상되어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
- -경기 부진과 낮은 성장률로 금리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 → 부동산 및 가계부채 상승에 따른 금융 리스크로 통화정책의 딜레마
- -금리 인하로 인해 유동성 중심의 부동산, 코스피 상승세 지속 전망, 금융안정 리스크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출처 - 대한경제



출처 -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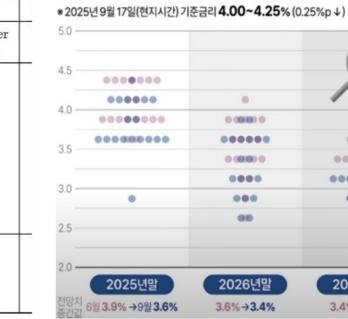
FOMC, 9월 기준금리 인하

- 9월 FOMC 예상대로 기준금리 0.25%P 인하
- -미 연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4.00%~4.25%로 인하, 연내 2회 추가 인하 가능성 시사
- -6월 FOMC SEP(경제전망) 대비 경제성장률과 고용은 낙관적인 반면 예상 인플레이션 다소 상승
- 위험에 대한 균형의 변화 → 인플레이션 위험보다 고용의 하방 리스크에 더 초점

출처 – Fed

-6월 FOMC보다 점도표는 편차가 커져 향후 중립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가중 → 연준 내부의 분열 조짐 가능성

17	$Median^1$				
Variable	2025	2026	2027	2028	Longer
Change in real GDP	1.6	1.8	1.9	1.8	1.8
June projection	1.4	1.6	1.8		1.8
Unemployment rate	4.5	4.4	4.3	4.2	4.2
June projection	4.5	4.5	4.4	- 1	4.2
PCE inflation	3.0	2.6	2.1	2.0	2.0
June projection	3.0	2.4	2.1	1	2.0
Core PCE inflation ⁴	3.1	2.6	2.1	2.0	
June projection	3.1	2.4	2.1	1	
Memo: Projected appropriate policy path	-				
Federal funds rate	3.6	3.4	3.1	3.1	3.0
June projection	3.9	3.6	3.4		3.0



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 19명의연도별금리전망점도표

0 00000 0

000000

0000

000

2026년말

3.6% → 3.4%

● 9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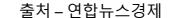
00

0000000

000

2027년말

3.4% →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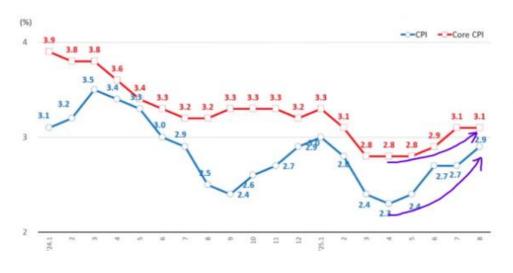




FOMC, 9월 기준금리 인하

연준 독립성 논란 속 금리 인하, 향후 전망은 불확실

-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독립성 우려 등 장기 금리는 상승, 스티프닝 현상 지속
- -파월, 이번 9월 FOMC 기자회견에서 연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 강조
- -트럼프의 연준 인사 개입, 불안정한 물가와 여전히 낮은 실업률에도 기준 금리 이하 →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
- 현재 공화당의 의석이 과반이 이상이라는 점과 트럼프의 공화당 장악력을 고려하면 향후 연준의 독립성 확보 난항 전망



⑤ KBS 뉴스 - news.kbs.co.kr → news

트럼프, 연준 새 이사에 '관세 책사' 스티브 미란 지명

도(Fed·연준)의 새 이사에 스티븐 미란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을 지 명했습니다. 미란 지명자는 지난 1일 전격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출처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출처 – 네이버



FOMC, 9월 기준금리 인하

차기 연준을 이끌 리더는?

- -파월의 임기는 2026년 5월에 종료, 그간의 행보를 고려하면 연임 가능성은 현저히 낮음
- -차기 의장 주요 후보로는 케빈 워시, 크리스토퍼 월러, 케빈 해싯 등이 지목, 현재로서는 케빈 해싯이 가장 유력
-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일시적이지 않을 가능성 고려, 향후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은 고착화될 가능성 높음
- -금리 인하에 대응하여 AI, 바이오 섹터 장기 투자 고려하면서도 금, 단기채 등 안전자산 포트폴리오 구축 필요





Weekly 주요 일정

날짜	한국	미국
9월 26일 (金)		PCE물가지수
9월 27일 (土)		
9월 29일 (月)		
9월 30일 (火)	소매판매	JOLTS 보고서, CB소비자신뢰지수
10월 1일 (水)		ADP 비농업 고용, ISM 제조업지수
10월 2일 (木)	소비자물가지수	실업수당청구건수



투자 전략

- -모멘텀 전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순환매나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중심의 주도 섹터(AI, 반도체) 집중
- -강한 장세에도 헤지 전략 혹은 현금 비중 확보 필요 → 작은 트리거에도 현재 시장의 포지션이 무너지면서 큰 변동성 유발 가능
-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위험과 경기 둔화 등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 여전
- → 다양한 변수들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주도주와 안전자산(금, 단기채), 헤지를 통해 포트폴리오 다각화 필요성

Compliance Notice

- 동 자료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용일 뿐 해당 주식에 대한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투자 판단은 본인 스스로 하며, 투자 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와이번에 있으며, 와이번의 허락 없이 무단 복사 및 복제, 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